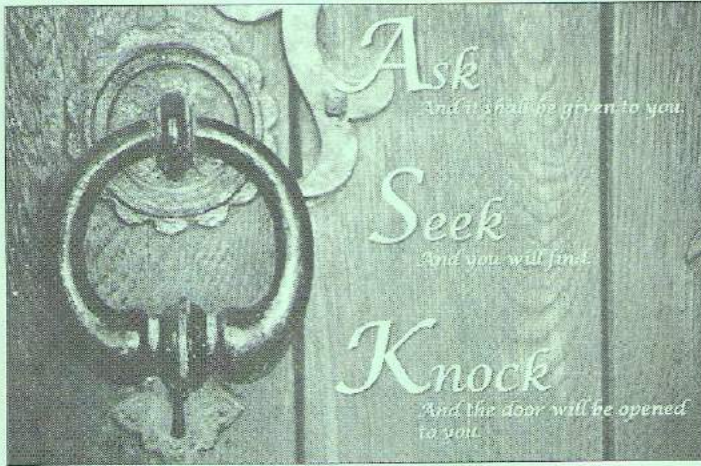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7주일
제36권 35호(다해) 2016년 7월24일

[묵상]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

"구하라 받으리라. 찾아라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 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

먼저 '인내'를,

그리고 '신뢰'를,

즉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 한다는 것과

그분이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

하느님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인내'란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시이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원한다는 표시이다.

'신뢰'란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시는 것을

기도 중에 진실하게 믿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뢰는 기도의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것 없이는 기도를 계속할 수 없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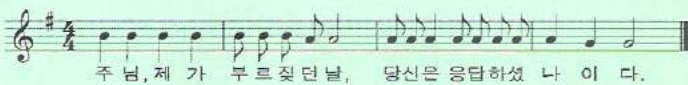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순자 레지나, 강안토니오
	(생)
주일 낮 미사	(연)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이용식베드로, 길기수, 정운 요셉
	(생) 황운재 베드로, 김영민 스테파노 가정, 김영석 마태오 가정, 김윤기, 김은 안나 & 오창에 안나, 김춘자 막달레나 & 김정웅 요한 가정, 박희자 마리아 가정, 정우석 루카,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18,20-32

화답송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2,12-1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복 음 루카 (Luke)11,1-13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7	187	180
봉헌	254	254	267
성체	281	281	281
파견	230	230	246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2. 식민지 아래서의 교회 상황

1938년에는 ‘조선 순교 복자 현양회’를 발족하여 순교자 신심을 조직적으로 선양하게 된다. 또한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문화 운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나아갔으니, 중앙 출판부를 설치하여 문서 전교와 한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가톨릭 청년」, 「별」, 「천주교 회보」, 「가톨릭 연구」 등 정기 간행물을 간행, 신자들을 재교육하고 교회의 태도를 밝히는 데에 활용하였다. 또한 ‘가톨릭 운동부’를 두어 적극적인 전교 활동을 하는 한편, 소년 운동, 여성 운동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3-3. 전시 체제와 교회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는 대륙 침략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쟁 수행에 대한 협조를 조선 교회에 강요하였다. 일제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으로 조선 교회의 정신적 기초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적·물질적 손실을 강요하였다. 이 전쟁으로 조선 교회가 받은 정신적 피해로는 신사 참배의 강요를 들 수 있다. 당시 일제가 이른바 ‘성전(聖戰)의 총후(銃後)’에서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정신 전력과 ‘일본 정신’ 강화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조선 교회는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갔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일본 정신 발양 주간’을 설정하고, ‘애국일’을 정하여 총후보국(銃後報國)을 강조하였다. 전국 성당에서는 황군의 무운장수를 기원하고 침략 전쟁의 전사자를 위한 위령 미사를 거행하였다. 이렇게 침략 전쟁에 대한 병적 찬양이 진행되면서 순교 정신마저 타락하여 갔으니, 교회 출판물을 통해 순교 정신으로 ‘순국’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한술 더 떠 일제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질적 자원을 공급해 줄 것을 교회에 요구하였다. 지원병제 실시를 ‘축하’하는 데에 교회의 참여를 요구하였고, 젊은 성직자를 비롯해서 전쟁 기간에 많은 신자에게 징집과 징용을 강요하였다. 교회 시설은 침략 전쟁의 도구로 징발되었다. 평양의 주교좌 성당을 비롯해서 대전, 연안, 양양, 신계 성당 등이 군용으로 징발되었다. 그리고 성당의 종을 비롯한 각종 철물을 전쟁 물자로 징발해 갔다. 군용 비행기 헌납 운동을 전개하도록 강요하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 헌금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직후 ‘적성국’으로 규정된 미국 메리놀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이로써 평양교구는 일대 공백을 맞게 된다.

<계속>

예수님과 솔직한 대화와 끈질긴 믿음으로 하느님의 꿈이 실현되는 삶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솔직한 자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쾌락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솔직한 표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겨 그 끈질긴 믿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거두시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항구하게 하느님의 뜻(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음미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창조와 구원의 꿈은 믿음으로 실현됨을 강조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묻혔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느님께 솔직하게 말씀 드리고,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믿음의 자세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음미하며 따라간다면 하느님의 꿈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성모님처럼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끈질기게, 또 몸애 배도록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면 우리에게 하느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느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삶의 어려움도, 기쁨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꿈을 사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쁜 삶,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루카 11,8)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성인말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열렬히 소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사소한 것들을 충실하게 충족시키길 원하십니다.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한경숙 안나	김금자 데레사
제물봉헌자			토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24일)은 Mission Appeal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아침미사 성인복사 하실 분은 본당 수녀님께 연락바랍니다.
- ◆ 성혈분배 봉사자 직무 수여식
그 동안 수고해주신 성혈봉사자님들의 봉사에 감사 드립니다. 본당 신부의 청원과 교구장의 인준으로 새로운 봉사자에게 성혈분배 직무를 수여합니다.(가나다순)
고규재 체칠리아, 김병래 요셉, 김 준 방지거,
김춘자 막달레나, 박인식 토마스, 반나영 체칠리아,
손 석 스테파노, 오세원 아타나시오, 유철희 바오로,
이병우 마리오, 이인석 비오, 최기남 야고보, 한춘선 루시아
- ◆ 제 29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일시: 7월 30일(토요일)-31일(일요일)
 - 장소: 이스트 엘에이 칼리지
 - 강사: 손 광배 도미니코 신부(인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신 상현 야고보 수사(꽃동네)
 - 참가비:\$25(예약시 \$20)
 - 문의: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사무실에
 - 대상 :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서정우, 제니퍼 현, 써니황
-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 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 명

- 밴드부 교사 1 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 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 29일(금): 2:00pm정각 출발
 - 31일(주일): 4:00 pm도착 예정
 - 준비물: 슬리퍼, 세면도구, 재킷, 주일헌금
 - 문의 : 황선준 플로렌시오 ☎(310)658-6654
-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을 모읍니다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 ◆ 영성피정 CD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세요.
- ◆새 회계년도(2016~17)를 맞아 성당홈페이지에 (www.103skcc.org)올려져 있는 담당 봉사자들의 명단을 수정해야 합니다.
 - 각 분과와 단체를 담당 하시는 봉사자들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고
 - 변화가 있으시면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로 7월31(주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봉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 담당자 안재만 다니엘 103skcc@gmail.co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24일 : * 토서 1,3반 (짜장밥 \$3)
- 7월31일 : * 토남 3반 (북어국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권오상 권태만 김상근 김성택 김정아 김 준 김진우 반정이 안태갑 엄정자 오명섭 오상준 오수인 윤 철 이미예 이영희 이원형 이인석 임 순 정정자 정규숙 정정현 조준제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황인중 이크리스	강미순 권오상 권태만 김 준 안태갑 엄정자 오수인 이미예 이영희 이인석 임 순 정정자 정규숙 정정현 조준제 최원석 최이원 최재은 황인중 이크리스
합계:\$3,410	합계 : \$1,360
주일미사헌금 :\$2,578	주일학교 썸머 캠프헌금:\$56
주보광고: \$240	환불 : \$ 75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한국어 SAT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중입니다

- 주체 : 한국어 진흥재단, 장소 : 강당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9:30 am~ 12:30 pm

2.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3. 백삼위 여름 수학 교실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4. K-Con : 한식, 한국어, K-POP등 한국문화체험

- 기간 : Jul 29~31
- 장소 : Staples Center/LA Convention Center
- 무료입장권(1매당 2인) : 성당 사무실 문의
- 자세한 사항은 www.kconusa.com 참조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남가주 소식

◆ 교구 지문날인(Finger Print) 조회 안내

- 일시 : 8월 13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3시~5시 20분
- 장소 : 성 아그네스성당 성가대 방
1451 Dana St. Los Angeles, CA90007
- 문의 : 성 아그네스성당 사무실(323-731-4433)

◆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 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 성서 사십 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진채 메히틸다 713-4926	김옥찬 수산나 7/17(일) 오후 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패츨릭 7/9(토) 오후 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7/15(금)오후 7시30분 코코호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주량 요한 7/23(토) 오후 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이명렬 라파엘 7/9(토) 오후 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윤선희 로사 7/16(토)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현석주 아오스딩 7/23(토)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여순 도미니카 7/19(화)오전 11시30분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희경 크리스티나 7/16(토)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7/17(일) Delton Park 오전 10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9(토) 오후 7시 성당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해나 베네딕타 7/30일 오전 9시 온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17(일)오후 1시 Ryan Park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7/9(토) 오전 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최수지 카타리나 7/12(화)오전 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성체 도둑이 성모님의 종으로 (2)

내 곁에 있지만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다 허무맹랑한 사상과 점괘술에 매달리며 그를 잊어 보려고도 했지만 결국은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한 치료에 중독이 되어서 네 번씩이나 받던 나는 결국은 마약중독이나 다름없는 정신과 진료 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단 한마디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으리라... 이제는 정신과 의사 없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무능한 지경까지 됐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불행은 그때부터였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찾아 다녔던 정신과 의사는 후에 알고 보니 그 무서운 사탄교회의 교주였던 것이다! 그 의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버림 받은 상처와 증오심을 고집여내어 끝없이 세상을 저주 하고 악을 자행하도록 나를 부추겼다. 나는 그가 원하는 일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했다.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를 떠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특히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축성된 성체를 훔쳐오도록 시켰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미사를 통해 사제에게 축성된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그 성체를 훔쳐다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갖은 모욕적인 말과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만의 검은 예식을 행한다. 그런 사탄교회의 추종자로 미친 듯이 살 아 온 지난 2년 동안 나는 여성으로서의 고귀함까지도 모두 잃어 버리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죽어 갔다...

10년 전 성탄 대 축일 밤, 그들은 내가 정말 자신들의 사탄교회의 추종자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어떤 한 자매를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나를 사탄교회 최고 간부로 세우기 위한 조치였음). 그 자매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로서 몇 년 전 젊은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세우고 특히 바티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자매였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나는 이 제의를 수락하였다.

1월 5일 저녁 8시 나는 옷 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그들이 가르쳐준 주소로 그 자매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 공동체의 책임자인 C 자매가 지금도 내게 하는 말이 있다. 그녀가 내가 누르는 초인종소리를 들은 순간 성모님께서 "내 딸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네 도움을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있으니 어서 문을 열어 주어라." 라고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날 C 자매는 나에게 문을 열어 주면서 "나의 자매여!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면서 나를 꼭 껴안았다. 예상치 못한 일로 내가 갑자기 그 C자매의 품속에 안겼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오래 전에 살았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껴안아 주는 엄마의 품에 돌아온 것처럼 그 자매의 품에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사랑하는 그 남자가 죽기 전까지도 늘 말해주던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다. 아, 그 사람이 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녀를 죽이려고 칼을 품고 찾아가는 그 한 번의 포옹으로 사악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포옹은 나에게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던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포옹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포옹, 그랬다! 내가 죽이려고 찾아가는 그 C 자매는 몸은 살아 있지만 죽은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 한 번의 포옹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나는 모든 것을 의탁하고 C 자매와 함께 지낸 지 약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의 삶은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 공동체에서는 나에게 미혼모들과 출소 재소자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도와주기 위한 센터를 세우고 자 책임자로 파견했다. 내가 감당하기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듯이 나도 그 센터 책임자로 봉사하면서 나의 출생에 대해 스스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 그래,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태어났겠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지? 나를 낳은 엄마라고 불러져야 하는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병원에서 갓 태어난 핏덩어리인 나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도록 나를 괴롭혔다. 이제 와서 나를 낳은 엄마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를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죄값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되면 나를 낳아 주어서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낙태 시켜 버리지 않은데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며 오히려 행복했다. 정말 엄마를 만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보자원센터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아기를 낙태한 뒤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더욱 나의 엄마를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내 삶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낳아 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집념을 갖고 생모를 찾는데 거의 2년의 세월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생모를 찾을 수 있는 법률기관의 도움으로 드디어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기를 통해서지만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소리를 들은 것 만으로도 기뻐으나 엄마가 먼저 나를 만나자고 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그 날 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감성의 모세 혈관들이 모두 곤두서는 것 같았다. 세상에 온갖 험한 일은 다 경험해봐서 두려운 것이 없는 내가 왜 이럴까... 마음을 진정하려고 숨을 몰아 쉬면서 안간힘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고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불가능했다...

<계속>

유혹에 빠진 예언자 발라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아 겁에 질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지녔던 발락은 예언자 발라암을 데려오게 하려고 사자들을 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발라암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하느님은 발라암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민수기 22,1-12

발라암이 쉽게 초대에 응하지 않자 발락은 더 높은 대신을 보내어 발라암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발라암에게 “무슨 요구든 지 다 들어줄 테니 우리 임금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발라암은 쉽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인들의 초청이 끈질기게 계속되자 하느님은 발라암에게 무엇이랄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민수기 25,1-18.31,8-16

발라암은 모압 왕인 발락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발락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복을 빌어주다니?” 세 번씩이나 장소를 옮겨 제사를 지냈지만 발라암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후 발라암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부패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라암이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발라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민수기 22,13-21.

발라암은 당시 근방에서 유명한 예언자였을 것입니다. 발라암의 인생이 화려하고 빛났지만, 마지막 순간에 죄를 지어 모든 게 허사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겸손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발라암이 점차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발라암은 오히려 자신의 탁월한 제주와 능력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않으셨습니다.” (민수 22,13)

“그러나 나는 ()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해 주었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여호 24,10)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구 흥보국장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마감을 사할 남기고도 글이 풀리지 않아 딱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통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힘든 게

다른 일 아닌 원고 쓰는 일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로 괴로운 건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은 학생이 공부가 아닌 밥 버는 일로 고달픈, 그런 것입니다.

본업으로 힘겨운 건 그 중 다행입니다.

-이영 아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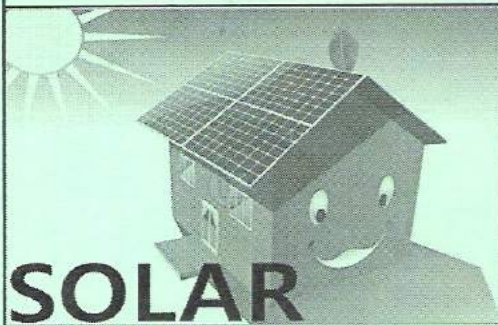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86-0738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재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 (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규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TO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상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16118 Halldale Ave.

Gardena CA90247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나콜라오)